

인천지역화폐 캐시백 10만원까지 지급

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캐시백비율 최대 10% ↑

소비 촉진을 위해 가정의 달이자 2023 동행축제가 열리는 다음달에는 인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캐시백 비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인천시는 다음달 동안 캐시백이 지급되는 인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도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7~10%를 적용한다.

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가게 부담을 덜어줘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인천사랑상품권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캐시백이 지급되는 인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캐시백 비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대로 10%,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기존 5%에서 7%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다음달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쓰면 1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

는 셈이다.

시는 추석 명절이 있는 오는 9월에도 한시적으로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확대하는 '가족사랑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10월 개최되는 '농수특산품 한마당 인천장터'에 참여하는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월 구매 한도 30만원 내에서 캐시백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대기업 택시 호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항하고자 도입한 인천 공공형 택시 플랫폼인 'e음 택시'를 이용할 때 결제 비용에 적용되는 캐시백 비율을 지난 1일부터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e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인천사랑상품권은 이달 현재 가입자 수가 239만명으로 인천시 경제활동인구 167만명의 143%에 달하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발행액(중전액)은 약 4조원, 결제액(거래액)은 약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불황 및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늘려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송도국제도시도서관 4년 만에 '첫 삽'

2019년 땅 매입, 사업비 증액 다음달 2일 송도동서 기공식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이 다음달 2일 토지매입 4년 만에 기공식을 갖는다. 사진은 조경도. (사진=연수구)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도서관으로 탄생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이 다음달 2일 토지매입 4년 만에 기공식을 갖는다.

연수구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던 송도동 115-2 도서관 부지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사들여 구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9427㎡에 사업비 477억여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197㎡) 규모로 건설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상 1층에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과 강당·북카페 등이, 2층에는 일반자료, 학습공간, 문화교육강의실·동아리실, 전시공간 등이 들어선 3층은 사무실과 동아리실·멀티미디어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2021년 2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국내 선진 건축사무소와 미국 펜타토닉사(Pentatonic LLC)의 공동 작품을 선정할 바 있다.

당초 국비 114억원의 확보를 전제로 추진

받기로 했던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게 됐고 연수구는 추가재정 없이 30%의 사업비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간 설계 완료 이후 각종 효율 상승과 외장재 변경, 지역 특성 반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발생 등으로 사업비 증액을 거쳐 착공에 이르렀다.

이번에 첫 삽을 뜨는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은 실용성 있는 입면외장재 등 친환경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기존의 유형화된 도서관을 넘어 송도만의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 설계됐다.

특히 대공간과 소공간의 영역별 분리와 반복적 구성으로 수직적인 일반도서관과 달리 수평적인 형태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동선 경험을 제공하며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개관 이후엔 송도지역은 물론 연수구 전역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을 총괄하는 연수구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함께 공공네트워킹 구축 등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식 기자

안테나

수도권매립지공사-검단소방서, 소방훈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6일 제3-1매립장 현장에서 인천검단소방서·119특수대응단과 함께 화재대응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을 연출해 공사 임직원·협력사 관계자 등 신속, 정확한 대응역량을 기르고 검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단소방서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화재는 진압에 많은 시간과 소방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평소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구아미 매립본부장은 "수도권 2600만 시민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재난대응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시립미술관 운영방안 모색

인천시가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천시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콘텐츠개발 학술용역'(2019년), '소장품정책 연구'(2022년)에 이어 인천시립미술관의 개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정체성 구체화와 차별화된 운영방안 전략 △건축 공간 영역별 운영계획 △조직, 인력, 예산 규모 △홍보·마케팅 계획 △스마트뮤지엄 및 디지털 서비스 기반 구축 방안 △주변 환경에 부합하는 자일 발굴과 활용방안 △개관 준비에 관한 업무 및 연차별 수행계획 등이다.

용역 기간에는 지역 내외 전문가 심층 인터뷰,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립미술관 개관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연차별 인력확충과 조직문화, 운영의 차별화 전략 등을 도출해 오는 12월 차별화된 인천시립미술관의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의 요청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국내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살펴 미술관이 수행해야 할 핵심가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도시공사, 미래도시 포럼 개최



인천도시공사(이하 인천대교)와 홀리데이인 송도 호텔에서 미래도시 인천을 위한 비전 수립과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구축을 위한 제5차 미래도시포럼을 26일 개최했다.

지난 2021년 10월 iH와 인천대교는 산학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정책과 사업에 적용 가능한 전문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포럼을 공동 개최해왔다.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25명의 전문가와 iH 실무자가 스마트시티, 회복 가능한 도시 등 미래도시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iH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5차 포럼은 한국 도시설계학회와 협업체 '탄소중립, 미래건축'이라는 주제로 인천대학교 나인수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안종삼 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업 모집

인천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 창업지원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을 27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경력 10년 이상을 가진 기술분야 교수 및 기업가·경영컨설턴트·변리사 등이 컨설팅 전문가로 참가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예비 및 창업 3년 이내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으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청년 창업기업은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4회까지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시 경영·기술, 제조·가공, 특허, 세무, 투자 등의 컨설팅 희망분야와 전문가 선택이 가능하고 컨설팅 방식도 사정에 맞게 대면 또는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다. 자체 상담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상담공간도 지원된다.

또한 컨설팅 참여기업 중 내부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총 500만원 범위내에서 마케팅비용 지원 등의 사업화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원도심지역 얽힌 공중케이블을 '하나로'

전선·통신선 정리 추진 35개 구역 935km 정비

인천시가 원도심 지역 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통신선 등 공중케이블을 보기 좋게 정비한다.

인천시는 올해 국비 210억원을 투입해 원도심 지역 35개 구역의 전선 1만6870본과 케이블 935km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원도심 지역 곳곳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중 지중화가 불가하거나 우선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정리(지상정비)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주요 정비대상은 공중에 뒤엉킨 케이블과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선·사선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케이블 등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2287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원도심 지역의 전선 8만7321본과 케이블 1835km를 정비한 바 있다.

올해 정비할 지역은 중구 을곡도서관 일

원, 미추홀구 보람어린이공원 일원, 남동구 오재어린이공원 일원, 부평구 동암초등학교 일원, 계양구 경인교대역 4번 출구 일원, 서구 길삼어린이공원 일원 등의 초등학교·공원을 포함한 35개 구역이며 정비지역은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와 평가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사업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전이 부담하며 올해 사업비는 당초 정부에서 정한 통신 분야 기중금액 125억원보다 많은 12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사업을 통해 미관 저해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케이블을 정리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과 초등학교·공원의 보행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도심 미관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크다"며 "시민 안전 보장과 함께 원도심 지역 정비를 위해 앞으로도 주무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모색

주민들 의견 폭넓게 수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제시

인천시가 2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경희 시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인천연구원 최영화 박사가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 유경희 시의원이 '시민 참여를 통한 원도심 활용 방안, 박진한 인천대 교수가 '중구 등 개항장 주변 연계 방안, 엄준식 국립경상대 교수가 '민간협력 및 참여방안을 내용으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인천우체국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위해 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제물포네상스 등과 연계해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활용도

높이기 위한 민간참여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시는 (구)인천우체국의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인천우체국은 1923년 건립된 건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이다.

6·25한국전쟁 때 지붕 일부가 훼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돼 있으며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경인지방우정청)가 소유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중 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시는 (구)인천우체국이 제물포네상스 중심 지역인 1-8부두와 개항장 문화지구유점점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과 건물연면적이 2152㎡(652평)로 비교적 큰 규모이고 지난 2019년까지 인천중동우체국 건물로 활용됐던 점 등을 감안해 민간협력 등을 통한 새롭고 참신한 활용 방안도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보존 및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종삼 기자

인천교통공사 재가 장애인 나들이 행사

허브아일랜드서 스트레스 해소

인천교통공사가 27일 포천시 허브아일랜드에서 장애인 및 보호자, 노후담복지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在家)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계양지역 장애인복지단체인 노후담복지관과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신체적 어려움으로 외출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재가(在家) 장애인들에게 문화 체험 및 자연 속 휴식 나들이 기

회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변 동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재활의 희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했던 한 보호자는 "재가 장애인들은 이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대부분을 가정에서만 머물러 있어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다"며 "오늘 같은 행사가 자주 마련돼 장애인들의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매년 2~3회씩 재가(在家) 장애인의 나들이 행사에 차량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인천교통공사가 27일 포천시 허브아일랜드에서 '재가(在家)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사진=인천교통공사)

로 지원해 왔으며 지난 2018년부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복귀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제고와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